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2학기 목회자 세미나 2월 11일에 개강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 연구원(원장 이종윤 위임목사)은 제2회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오는 2월 11일부터 개설한다.

92년 11월 16일까지 국내외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2년 6학기 동안 총 60회에 걸쳐 초교파적으로 진행될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현장 목회에 필요한 많은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의 수업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180분 동안 진행되는데, 제1교시에는 이종윤 위임목사의 주강의와 제2교시에는 각 학기의 주제에 따른 강의들이 있을 예정이다.

제2회 목회자 세미나는 전국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회 비전을

새롭게 확립시키고 신학과 말씀 연구에 전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학기가 개설되는 기간 중인 3월 25일에는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신학 교육과 교회”라는 주제로 충현 복음 심포지움도 개최할 예정이다.

◇ 학기별 주제

학 기	기 간	주 제
1	'91. 2. 11~4. 15	교회 성장과 갱신
2	'91. 5. 6~7. 8	예배와 설교
3	'91. 9. 2~11. 11	목회자와 교육
4	'92. 2. 10~4. 13	신학과 성경 연구
5	'92. 5. 4~7. 6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
6	'92. 9. 14~11. 16	목회 행정과 심방

◇ 제1학기 프로그램

제1교시 (오후 2시~3시 30분)		제2교시 (오후 3시 50분~5시 20분)	
2	11	교회 성장과 평신도 역할	이상훈 교수
	18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현황과 협력 방안	이원규 교수
	25	교회 갱신을 위한 바른 목회자상	하해룡 목사
	4	종교 개혁과 현대 교회	이수영 교수
	11	교회 갱신과 설교	김동익 목사
3	18	한국 전통 풍습과 기독교 윤리 (유교 및 도가사상과 관련하여)	이형국 교수
	25	제3회 충현복음심포지움 주제: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신학 교육과 교회 설교: 한국의 신학 교육 이대로 좋은가(이종성 박사) 1. 신학 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전호진 박사·허 건 박사) 2. 신학교 커리큘럼과 목회 현장(이종윤 박사·조종남 박사) 3. 신학교 난립과 목사(후보생)의 자질 문제(박영희 박사·맹용길 박사)	
	1	주제: 성경적 교회 성장 원리	신성종 목사
4	8	교회 성장과 신학	차영배 교수
	15	한국 교회 부흥 역사 고찰 및 전망	민경배 교수

수양회 통해 새롭게 거듭난 중등부

우리 교회 중등 1, 2, 3 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갈릴리홀에서 겨울 수양회를 가졌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주제 아래, 세 부서가 연합으로 개최하였던 이번 수양회에서 김연이 전도사(중등1부 지도), 안경소 목사(중등2부 지도), 김은태 목사(중등3부 지도)를 강사로 모시고 “대화법”, “92년 제림설에 대한 성경적 비판”에 대한 특강과 “변화·사명·현신의 삶”을 주제로 부흥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찬양대회, 촛극 발표



회 등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체험을 하였다. 연령별 편제에 따른 분할 이후, 연합으로 가진 첫 집회였던 이 수양회는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는 학년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91년 제1학기 충현 장학생 선발

충현 장학회는 오늘부터 오는 2월 10일(주일)까지 91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을 신청받는다.

장학금 지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2월 10일까지 90년도 제2학기 성적표와 교구 담당 목사의 추천서를 기획조정실(소석관 103호)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회는 제출된 서류들을 심사하여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3월 17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임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친애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교회 찬양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내적 결속과 아울러 실력 있고 은혜스러운 찬양대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대부분의 찬양대가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드림으로써 성도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주 중에 연습하는 어느 찬양대의 뒷자리에 가 보고는 또 한번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지휘자가 대원들을 모두 뒤로 서게 하고는 지휘자의 싸인없이 박자와 강약을 맞추는 연습까지 하는 피나는 훈련 과정을 지켜 보면서 모범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모범적인 찬양대의 모습을 한국 교회에 보여 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차체에 기도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는 대원은 찬양대석에 설 수 없다는 전통을 한 번 세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이 찬양대원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 27

이 중 윤 목사

장년1부

30대 영성 재무장수련회 은혜롭게 마쳐



이라는 제목으로 이종윤 목사의 강의를 “30대의 고민,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신상철 박사의 강의가 있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30대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장년1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베다니홀에서 30대 영성 재무장 수련회를 가졌다. 개회예배를 드린 후 “부패되어 가는 개인·가정·사회”라는 제목으로 비디오 상영이 있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30대의 생활”

또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30대 그리스도인들의 화합을 도모하였고 “건강부부상” 추첨 및 시상이라는 이색적인 순서도 있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의의도 확립할 수 있었다.

직 원 모 집

1. 직 종 : 운전 기사
2. 자 격 : 세례교인, 1종 면허증 소지자
3.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4. 제 출 처 : 총무과
5. 제출기한 : 1. 29
6. 문 의 : 충현 장애아동조기교육원(소석관 107호)
전화 : 562-0588



성경 강해

이 종 윤 목사

예수 우시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요 11:33-37)

4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눈물이란 흔히 연약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흘리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5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연고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 오셨다면,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름은 거창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갖추고 있으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한숨과 눈물을 지으시겠습니까?

1. 참인간 예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요 11:35)

예수님께서 참인간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이단 사상 가운데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이고,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이단 사상이 풍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영혼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나셨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의 시신을 세파로 싸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린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목마르시더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베 밑창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눅 8:23).

우리들은 예수님을 환상적인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위선자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죄 없는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동정심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히 4:15).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올라 앉으셔서 내려올 줄 모르거나, 고고하게 대접이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약점과 허물과 슬픔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요 11:33).

‘통분(痛憤)히 여겼다’는 말은 책망에 가까운 노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통하고 분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감정들이 눈물이라는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요 11:37)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 하여도 눈물을 흘리신 사건 때문에 흠을 가진 자로 낙인찍힐 만한 안타까운 자리에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수천, 수만명이 모이고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찾아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부패한 냄새만을 풍기는 나사로와 같은, 더럽고 추한 냄새를 풍기는 한국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처럼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시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순교라도 하겠다고 대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기분이 상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 집어치우고 떠나 버립니다. 이것은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일시적인 감정에 따르는 것보다 더 열은, 참으로 불품 없는 자기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들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며, 슬픔에 처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매우 귀한 존재들로 대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창 1:26, 27), “왕 같은 제사장들”(벧전 2:9)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로 보시고 택한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게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 종의 형체자로 우리 하심이니라”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마 27:46).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온갖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마 11:28).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 오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 주시고 우리들을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죄짐을 지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울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정에 통분히 여기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쌓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사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고”(요 11:36)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또 다른 이유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들은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교사가 될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 30대 여성 재무장 수련회 특강 요지

30대의 고민, 그리고 그 대책

강사 신 상 철 박사

30대의 여성들은 주변이나 자신에 대하여 자주 노여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열심히 집안 일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자신에게 흡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데 대한 열등감으로 인하여 이런 막연한 분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자식들이 성장할수록 품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나 식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자신에게 요구함으로써 끊이지 않는 집안 일을 대할 때도 이런 분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30대 여성들은 인내심이 저하되고 성격이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하게 되며 거친 말을 사용할 때가 많아진다. 또한 이들도 무력감이나 약간의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매사가 귀찮아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허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냉담해지며 지극히 현실적으로 변하게 된다.

30대 여성들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안일 외에 독서나 운동 등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생활에 리듬을 살리고 주일마다 주간 계획을 잘 세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서 실천해본다. 그리하면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일상적인 권태감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0대 남성들에게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자존심에서 비롯되는 강한 고집이 생긴다. 그리고 신체적 변화에 대하여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덜 해지고 심하면 몸져 눕기까지 한다. 또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심이 퇴보하게 된다.

따라서 30대 남성들은 먹고 사는 일에만 조급해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여 30대에 적합한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부부간에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거나 자기만이 옳다고 한다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자세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요구를 알 수 있게 된다.

■ 위원회를 찾아서(2) - 제1교육위원회

내실 있는 교육 통해 좋은 교육의 모델 이루도록



우리 교회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를 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선근 장로), 즉 교육 이념을 '천국시민 생활'로 삼아,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천국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두고, 교육 목적은 '천국일꾼양성'으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1교육위원회는 1991년에도 모듬 사업 계획을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에 근거를 두고, 각 부서별로 교육 진행 사항 점검 사업 및 행사를 지도 및 감독하게 된다는 것, 영아부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12개 부서에 나뉜 제1교육위원회는 교육과 훈련에 치중하여 교사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능력 있는 교사들에 의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좋은 교육의 모델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미 지난 1월 10일과 교사 청지기수련회에서 위임목사의 '91년 목회지침'을 비롯해 '교사의 자질 및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하여 세미나 형식의 강의를 들으며 부서마다 교육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교사 훈련 차원의 교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각 부서의 일선 실무자인 교회학교 부감·처장·과장 등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행정의 총괄적 지도 및 점검을 위하여 행정 지도를 가질 예정이며, 학부 지도를 통하여 총무·교무·생활 지도 업무에 대한 점검과 일관성 있는 지도가 있을 예정이다.

또 계절학교와 어린이 및 중·고등학생 전도의 확산을 위한 세 부 계획 수립과 전도 집회를 각 부서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1

교육위원회가 지도할 예정이며, 전반적인 교육 행정을 평가하며 감사하는 기능도 발휘할 계획이다.

1991년은 교육 예산의 현실화에 부응한 실제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것이며, 이런 벽찬 사업과 행사들을 교육위원회 지도목사, 그리고 각 부서를 책임진 부장장로들(교육위원)과 협의하여 시행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제1교육위원장은 글을 마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하였다. "물론 천국 시민 양성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적 사명을 봉사와 헌신적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뒷받침해 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금년에도 책임을 맡고, 2천년대를 향한 세계 속의 총현교회 성장과 함께 교회 교육에 대한 기초적 방향을 잡는 데에 미력이나마 힘을 쓰고자 합니다."

때	행 사 내 용	때	행 사 내 용
1월중	부장·지도 협의회 교회학교 실무자 교육 각부 행정 지도	7, 8월중	여름 성경학교 및 수양회 실시
1, 2월중	겨울 성경학교 및 수양회 실시	9월중	성경학교 평가
4월중	성경학교 평가 학습 평가	10월중	학습 평가 교사 세미나
5월중	교사 세미나 어린이 전도집회 중·고등학생 전도 집회	연 중	대외행사 참가 강습회 참가



원시인이 된 현대인



김 광 신 장로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걸프 전쟁에서는 최신 전자 장비를 갖춘 신형 무기가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히 현대인의 전문화된 지식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인류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후부터 문명의 발달이 계속되어 왔으나, 그 속도가 지금처럼 빠른 것은 예전에 없는 일이다. 그 만큼 오늘의 인류는 최첨단을 가슴에 안고 사는 현대인이 되었다. 자동화를 통한 편리함이 구석구석에 파고 들고 있는 현실에서 앞

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편리함이 우리를 위하게 될런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형편이다.

이와 병행해서 같은 수준만큼 현대화 되어야 할 인간의 본성은 그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있으며 급가야는 원시적인 수준에까지 급강하 하고말느낌이다.

그 좋은 예가 최근의 정치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들이 이 사건들을 대하고 느끼는 심정은 인간성의 향상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자기의 범죄를 깨달은 다윗 임금의 오늘날의 범죄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가짐을 보여줌으로써, 진자 현대인임을 입증해 주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죄"라고 자백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다른 나라 임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일반화된 관습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기자 회견까지 자청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저 능이 큰 죄인이라고 남의 죄를 크게 말하거나 자기 죄는 눈의 티 정도라고 말하지 않았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데 나만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

다. 다윗 임금은 말하기를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완전 범죄를 자인하였다. 그는 현대화된 사회에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인간성의 시간으로 살기를 거부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문명의 현대화와 함께 "인간성의 현대화"가 아닌가 싶다. 이 중대한 문제를 걸머지고 있는 한국의 교회들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아픔을 느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인간성의 회복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일진대,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 때에, 이 세상을 원시인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기대만 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빨리 천국에서 현대인을 만들어 주님께 드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호 세기동은 조선근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교육의 현장 - 사랑부

부서의
특수성 살린
교육 시행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자들의 신앙 생활을 돕고 있는 사랑부(부장 강모용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이는 교사 기도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의 일과를 시작한다.

사랑부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91년도 교육 목표를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정하고, 모범적이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부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교사들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주일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랑부에서는 6세부터 32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하여 인형놀이, 집놀이, 그리고 음악과 간단한 운동 등 정신 지체아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분반 공부 시간에는 다른 교육 부서와는 달리 색칠 공부를 하거나,

또는 “지체 운동”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신체 마비로 인해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

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비디오 상영이나 연극 등 입체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사랑부를 처음 찾는 학생들이 새로 접하는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교사들이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의 덕분으로 3~4주가 지나게 되면 옛모습을 버리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데 익숙해진다.

그래서 학생수가 설립 당시에는 10명도 채 되지 않던 것이 이제는 120명에 육박할 정도로 부흥하게 되었다고 한다. 크게 증가한 사랑부의 학생들은 지금 충성반, 믿음반, 소망반, 사랑반, 신입반 등 5개 반으로 나뉘어져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사랑부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하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끊임 없는 기도와 관심이 더하여지기를 바라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찬양대로 봉사하던 내가 남편을 따라 충현교회로 등록한 지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갓 시집온 새댁처럼 교회가 크고 모든 것이 낯설어 적응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렇지만, 많은 갈등 속에서도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기둥, 즉 “천국 일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목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여 교회로 달렸다.

요즘 교회들마다 찬양대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수련회를 통한 교육은 우리 충현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나로서는 대단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열한 개의 각 부서별 찬양대원들이 한 데 모여 제1부로 찬양대 헌신예배를 드렸다. 우렁차게 부르는 찬송마다 가슴이 뭉클해 왔고 사명감에 불타는 열기를 발하는 눈동자마다 신비한 힘이 있었다.

하여 강의했던 김명업 교수는 교회 음악이란 곧 예배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찬양은 세속음악과는 달리 음악적 기교와 지식만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예배 인도자로서의 찬양대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찬양의 시대! 그렇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 숨쉬는 찬양이 불리져야 한다.

■ 청지기수련회 참가기

모범적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다짐하며

강 길 레 집사(베들레헴찬양대)

하나님의 뜻이 게서서 부족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고 봉사할 기회를 갖기 위해 기도하였다. 그런데 중 비록 세상적으로 평가되는 경력은 화려하지 않지만 남달리 용기와 건강,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무기를 주신 주님께서 움츠리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드러내 사용하시기 원하심을 깨닫고 맡겨지는 일마다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시간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기로 다짐하며 적응해 왔다.

찬양대원 청지기 수련회가 있었던 1월 12일에도 첫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생활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였다. 하루가 여지없이 바쁜 일정으로 동동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91년도 찬양대원 청지기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

특히 “모범적인 찬양대”란 주제로 이종운 위임목사가 하신 강의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이어야 하며 그러한 예배를 돕기 위해 찬양대가 있어야 하므로 찬양대의 찬송은 곡을 담은 메시지이며 곧 기도요 말씀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영감이 넘치는 좋은 곡과 가사 등 효과적인 찬양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충분한 훈련과 준비와 겸손한 자세로 임함이 당연하다 하며 따가운 질책과 더불어 찬양대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모범적인 찬양대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당부하셨다. 이러한 주옥같은 이종운 목사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한층 더 고조시켜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찬양대의 기능과 임무”에 대

나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아무런 준비와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찬송들이 불러져 영감이 상실되는 것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팠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수련회를 자주 개최하여서 찬양대원들의 질적 향상을 재인식케 하여 모범적인 찬양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귀한 청지기 수련회를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져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두를 간직한 성숙한 신자로서 우리 주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질그릇이 되어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는 데 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 5 과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후손

본문 : 창세기 15 : 4, 5, 17 : 17~19

찬송 : 445, 448

본문 연구

1. 하나님의 약속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 자식이 없던 그에게 후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창 15 : 4, 5).
2. 이스마엘의 출생 :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필요한데, 기다려도 자식은 없고 나이는 들어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창 16 : 15, 16).
3. 이삭의 출생 :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죽은 몸과 같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창 21 : 1~3).

4. 하나님의 선택 :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배울 수 있습니다(창 25 : 22, 23).

문답

1.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갈 3 : 16)?
2.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롬 9 : 6~9).
3. 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까(롬 7 : 10~14, 20, 21)?

토의

1. 지난 주 설교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을 이야기해 봅시다.
2. 한 주간 동안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3.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경험한 은혜와 체험을 나누어 봅시다.

기도

1.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교회·가정·개인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나라의 평안과 우리 도덕의 바른 회복과 중동전쟁의 빠른 종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 영혼과 육체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